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5:9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사순절 제1주 】

전 주 .....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	비 전 .....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29. 성도여 다 함께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욕심과 허영심으로 흐려진 마음의 창을 닦기 위하여 주님께 나왔습니다. 사순절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 마음이 이전보다 맑아지게 해주시고, 우리 영혼이 주님의 뜻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과 오롯이 일치하게 해주십시오.

각급 학교를 졸업하는 이들이 새롭게 다가오는 생의 도전을 받아들여 저들의 생의 지평이 날마다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어려운 이들에게는 좋은 이웃과 동료가 되게 해주시고, 의를 위해 고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참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남을 짓밟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뒤쳐진 이들을 기다려주고 따뜻하게 보듬어 안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사59:21 .....	인도자
♠ 교 독 문 .....	47. 요한15장 .....	다함께
♠ 영 광 송 .....	3. 이 천지간 만물들이 .....	다함께
대표기도 .....	김재흥 목사	
응 답 송 .....	성가대	
찬 송 .....	453.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	다함께
성경봉독 .....	시147:12-20 .....	한상익 권사
찬 양 .....	성가대	
말 씬 .....	말씀이 봄빛 되어 .....	김기석 목사
거둠의 기도 .....	다함께	

헌신의 찬송 .....	514. 누가 주를 따라 .....	다함께
헌금봉헌 .....		다함께
♠ 봉 헌 송 .....	354.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결단의 찬송 .....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	다함께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절망한 사람들의 가슴에 희망을 심어주고, 한 맺힌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봄소식들이 되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주님. 그리 하겠습니까. 이제 앞만 보고 달려가던 삶의 발걸음을 늦추고, 이웃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며 살겠습니다. 덜 가지고, 더 많이 누리며 살겠습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살아 계신 주님을 모시고, 천천히 그러나 확고한 발걸음으로 하늘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

담당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b>주일 오후 집회</b>	<b>수요 집회</b>
에스겔 통독강좌(39)	신명기 강해(31)
기도 : 배삼순 권사	기도 : 유명남 권사

<b>다음 주 에 배 위 원</b>	<b>설교</b>	<b>기도</b>	<b>성경봉독</b>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임보람 선생 윤석철 장로	인도자 이영란 집사

<b>2월</b>	영접위원	윤정덕 김준호 김 극 김필순 장혜숙 안경숙
	헌금위원	강인식 박창운 김용진 곽혜자 김명순 최숙화

## 일상의 이삭줍기

●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어 찬바람을 맞으며 참 시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춥다며 창을 닫으라는 요구를 잠시 묵살하며 아침과 해후합니다. 아침 햇살이 신선합니다. 살아있음이 고마운 순간입니다. 어느 인디언 추장의 충고가 떠오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면  
아침 햇빛에 감사하라.  
당신이 가진 생명과 힘에 대해  
당신이 먹는 음식  
생활의 즐거움에 대해 감사하라.

만일 당신이  
감사해야 할 아무런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당신 잘못이다.(쇼니족 인디언 테쿰세)

세상의 어둠은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우울과 짜증의 경계를 넘으면 기쁨과 감사의 세계가 열립니다. 그 세계로 통하는 문은 미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 읍기를 읽다가 하나님께서 “뵘족한 눈으로 나를 보시고”(16:9)라는 구절을 만나서, 잠시 읍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실감이 나시지요? 표준새번역은 그 대목을 “살기 찬 눈초리로 나를 노려보시니”라고 옮겨 놓았더군요. 이 번역은 읍의 두려움과 아픔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지만, ‘뵘족한 눈’이라는 표현 속에 담긴 어떤 염원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뵘족한 것’은 찌르고 가르는 일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우리의 눈길은 어떠한지요?

황대권은 직선이 곡선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연 속에는 직선이 없다며 지구라는 행성 위에서 직선을 만들어내고 좋아하는 것은 오직 인간뿐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곡선 가운데 하나가 인간이다. 균형 잡힌 몸매의 유려한 곡선은 시대를 초월하여 예술가들의 찬미의 대상이었다. 서로 아껴주고 감싸는 영혼의 아름다움 역시 곡선이다. 사랑을 뜻하는 하트 모양을 보더라도 인간은 곡선 안에서 휴식을 느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지막한 들담으로 둘러싸인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따라 가노라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평온해진다. 곡선이 주는 치유의 효과다.

깎아지른 듯한 산이나 절벽을 보거나, 상상하기 어려운 크기 앞에 설 때 사람은 숭고함 혹은 경외심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완만한 구릉을 바라볼 때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초가지붕과 그 위에 달린 둥근 박을 보노라면 마음도 덩달아 둥글어집니다. 가파른 눈길로 서로를 탐색하는 곳에 평화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눈길은 예각이 아니라 둔각입니다. 그 눈길이 세상을 구원합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서 사랑할만한 것을 찾으셨습니다. 사랑할만한 것이 없으면 그것을 창조해서라도 사랑하셨습니다.

● 엄마를 따라 수요 집회에 나오면서 보영이는 신이 났습니다. 한 살 아래 친구인 주희와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날 따라 주희는 교회 장의자에 누워 혼곤한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보영이는 엄마 옆에 다소곳이 앉아 있다가 행여나 하는 마음에 주희를 보러 뒷자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보영이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주희는 쿨쿨 잠만 잡니다. 보영이는 차마 친구를 깨우지 못하고 장의자 뒤에 쭈그리고 앉아 주희의 손만 가만히 쥐어봅니다. 주희의 손목에 자기가 들고 온 장난감을 쥐어줘 보기도 하지만 주희는 반응이 없습니다. 보영이는 짧은 한숨을 내쉽니다. 다시금 엄마 곁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주희에게 가 있습니다. 얼마 후 다시 주희에게 가보지만 주희는 꿈나라에서 돌아올 생각이 없습니다. 보영이는 예뻐 시간이니만큼 소리는 못 내고 입 모양만으로 주희를 불러봅니다. ‘주희야, 주희야’. 저는 아이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 없이 나 혼자 어떻게 이 지루한 시간의 강을 건너라고?’

친구를 향한 그리움과, 그를 차마 깨울 수 없는 그 조심스러운 마음이 어여쁩니다. 우리가 언제 이웃들을 그 마음으로 대했던가요? 아이들은 언제나 어른의 스승입니다.(석)

## ■ 마/음/으/로/읽/는/글

### 교회학교 교사

교회학교장 : 김인걸

교육전도사 : 염혜영 최인환

영 아 부 : 한선희 김진경 이수정 김수진 이명희 최희영

유 치 부 : 권미정 박준영 김용원

유초등부 : 노순옥 곽권희 유경순 임보람 박인혁 황건호 임고운 이해명

중고등부 : 문영혜 조운숙 황경순 조관행 박정숙 김지호

청 년 회 : 조항범 김재홍

### 각급 학교 졸업생

영 아 부 : 김주희 김서영 권나영 임희성 김순규 박지원 양준하

유 치 부 : 이서현 박현진 임예나 서형석 이승연 박우현

초등학교 : 이세미 장유경 하진채 안 현 송대길

중 학 교 : 조재훈 김희은 송원길

고등학교 : 안 훈

대 학 교 : 염혜영 최인환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심방전도사 : 장영숙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장      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이용한 윤석철

성가대장 : 한상의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 장 : 이순정

## ◇ 헌 금 영 수 기 ◇

### 십일조헌금:

윤석철 장혜숙 조병무 송양진 고사일 최영선 김필순 김근종 정옥영  
 백요현 김윤수 박옥경 이정규 이인섭 박영희 윤미경 방민 안정숙  
 강인식 김정숙 김순복 전영웅 전영순 박재실 임고운 최인환 신윤정  
 홍순구 안홍숙 한선희

### 월정헌금:

하현철 최성애 유증희 이재문 정미경 김명순 표영화 김흥기 문금석  
 정두리 이소순 조병주 김미순 김종문 지명주 송의섭 임수연 임원민  
 이은자

### 감사헌금:

양재성 장영숙 김철수 최영혜 박창운 허정윤 장준호 이정은 김인걸  
 문영혜 권명자 이인섭 하재두 박홍재 김시영 최명동 김중수 이순정  
 김수빈 무명1

생일감사헌금: 장혜숙 이소순

##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영남	차혜심	심	최희영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노순옥
안디옥	임정자	곽권희		정복순
가나안	문영혜	박경선		김명순
갈릴리	조병주	박애순		문금석
베다니	임창선	박홍재		김춘려
시온	박효선	허정윤		박효선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최숙화
에베소	이순정	장혜숙		이순정
빌립보	구성실	박현우		이형숙
가버나움	구명자	안홍숙		구명자
나사렛	백혜숙	정옥영		백혜숙
갈라디아	송양진	유경순		송양진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방극숙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박혜경	

##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사순절** : 오늘은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기 첫 번째 주일입니다. 강단색은 재계(齋戒)를 뜻하는 보라색입니다. 몸가짐 마음가짐을 단정히 하고 경건생활에 힘쓰는 기간이 되기 바랍니다.
2. **졸업** : 각급 학교를 졸업하고, 또 다른 출발점에 서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3. **교사임명** : 교회학교에서 수고하게 될 교사를 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해주신 일에 힘과 정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4. **교사수련회** : 교회학교 교사 수련회가 2월 20-21일 열립니다.
5. **월례회** : 예배 후 제1.3남녀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6. **동호회** : 한 달에 한번씩 취미가 비슷한 교우들이 동호회 활동을 통해 친밀한 사귄의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함께 하고 싶은 동호회에 이름을 기입해주십시오(영화감상, 등산, 볼링, 바둑, 요리배우기...).
7. **지방회** : 중구용산지방 지방회가 2월 21일(월) 오전 9시 30분부터 정동 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구역회에서 지방회 대표로 선출되신 분들은 꼭 참석해주십시오.
8. **신앙실천** : 가급적이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이 생태적으로 균형 있는 삶이 될까 고민하며 사십시오.

\* 헌화 : 정두리 권사 (생일)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